

민 성 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작품 「공존」에 관한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오 동 훈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03년에 제작한 작품 「공존」을 중심으로 작품에 나타난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그 조형성을 연구한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현대 문명은 인간 소외, 환경 파괴 등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낸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연과 타자를 공존의 대상보다는 지배와 억압의 대상으로 여겨온 서구의 근대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양적 사상을 통해 공존의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고자 하였고, 작품 「공존」을 통해 하나의 유기체로 공존하는 동양적 관점에서 바라본 우주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우주를 상징하는 원은 그 본질을 담지하고 있으면서도 기하학적으로 변형하여 표현하였고, 음과 양의 공존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본 논문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제작 동기와 작품의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과 방법을 밝혔다.

제 2 장 본론에서는 작품 내용의 중심이 되는 음과 양의 조화와 공존을 동양적 우주론에 입각하여 그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형화된 작품의 표현 방법을 밝혔다. 작품 분석에서는 제작기법, 표현재료, 제작 의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작품 「공존」의 조형적 특성을 밝혔다.

제 3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과 작품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본인의 작품 세계를 정리해 봄으로써 향후 본인 작업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형성의 이론적 배경	3
2. 작품의 표현방법	7
3. 작품 분석	11
III. 결론	27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공존 I (共存) 1330 × 650 × 1500 (mm) Stainless steel 11
- 【작품 2】 공존 II (共存) 870 × 320 × 830 (mm) Stainless steel 13
- 【작품 3】 공존 III (共存) 780 × 300 × 580 (mm) Stainless steel 15
- 【작품 4】 공존 IV (共存) 730 × 200 × 700 (mm) Stainless steel 17
- 【작품 5】 공존 V (共存) 800 × 400 × 1600 (mm) Stainless steel 19
- 【작품 6】 공존 VI (共存) 860 × 200 × 800 (mm) Stainless steel 21
- 【작품 7】 공존 VII (共存) 650 × 300 × 750 (mm) Stainless steel 23
- 【작품 8】 공존 VIII (共存) 1250 × 1130 × 1330 (mm) Stainless steel 25

I. 서론

헤겔(Hegel)¹⁾은 “예술은 이념을 감각적 직관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예술의 본질은 기술적 제작 활동이라기보다는 정신의 소산”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술이란 예술가의 내면세계를 미적 표현에 의해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예술가는 사물의 존재를 그의 개념과 상상력을 통해 상징적 의미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예술작품으로 거듭나게 한다. 즉, 예술가는 이미지에 상징²⁾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신세계를 작품 속에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품 속에 구현된 예술가의 내면세계와 미적 표현을 통한 형상화를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작품 「공존」에 관한 조형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작가의 내면세계에서 주목한 것은 ‘공존’이라는 상징적 의미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공존’의 의미가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을 가

1) 헤겔(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1770-1831)은 독일 철학에서 관념주의 또는 이상주의(理想主義)라는 철학 체계를 완성시켰고, 법철학, 종교철학, 정신현상학, 역사철학, 예술철학 등 다방면에서 다른 어떤 서양철학자보다 방대하게 자신의 저술을 남겼다. 게오르크 W. 프리드리히 헤겔, 두행숙 역, 「역자의 말」, 『헤겔미학 I』, 나남출판, 1996, p.6.

2) 상징(symbol)은 일반적으로 감상적인 것에 있어 초감각적인 것(이성)이 표현되는 것이다. 예술이 이념의 감상화, 감각적인 것의 정신화라는 측면에서 상징은 극히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월간미술 엮음,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8, p.226

져왔지만, 인간 소외, 정신의 황폐화, 환경 파괴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 이는 자연과 타자를 공존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정복하고 지배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한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³⁾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양적 사상을 통해 '공존'의 이론적 근거를 모색해보았다.

동양적 사상에서는 우주를 '대우주', 인간을 '소우주'라고 보고, 대우주에 성립되는 법칙이 소우주(인간)에도 반영되어 성립된다고 본다. 즉, 인간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본질,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동양적 우주론에서 우주는 변화하면서도 불변하며, 우주의 모든 만물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나뉨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한다. 이러한 우주의 홍망성쇠 하는 무한 진리를 통해 만물이 공존하는 인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서 변화와 불변의 법칙 속에서 음과 양이 공존하는 우주의 진리를 형상화하고 새로운 인간 삶의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제작된 작품 「공존」의 조형성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으로는 동양적 우주론의 음과 양을 통해, 우주의 이치인 공존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우주를 매개로 나타난 기하학적 원이 갖는 이미지를 정립하였고, 원을 조형적으로 형상화함에 있어서 그 표현 방법을 서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본인의 작품을 제작 기법, 표현 재료, 제작 의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그 작품세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3) 김형기, 「역의 공존적 이해와 폐효의 상징화」,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2003.

II. 본 론

1. 작품형성의 이론적 배경

근대 사회로 오면서, 전체에 조화된 부분적 존재에 만족했던 고대, 내지 중세적 사유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에 바탕한 개인의 독립성, 개별성을 추구함으로써 종래의 유기체적 가치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근대적 인간이란, 이성의 담지자로서 자연의 법칙을 간파해냄으로써 자연을 조작하고 이용해내는 존재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이성 중심주의에 입각해 형성 발전되어온 현대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⁴⁾ 기계론적인 이분법적인 세계 인식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지만, 배제와 차별의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다.⁵⁾ 즉, 개인간의 분리와 단절의 문제, 경제성장의 광기, 물질주의적 문화, 환경 문제, 경쟁과 갈등의 폐해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은 서구 근대 세계관 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⁶⁾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구 근대 사상과 대별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계론적인 배제와 차별을 드러내고

4) 위의 논문, p.185.

5) 이마무라 히토시는 근대 세계는 전체에 있어서도 부분에 있어서도 기계론적 혹은 제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근대 세계의 요소로 가장 기초가 되는 기계론적 세계상과 이것이 구현된 방법주의, 시민사회, 노동세계, 시간의식을 들고 있다. 그는 배제와 차별의 근대를 넘어서 타자공동체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마무라 히토시, 이수정 역, 『근대성의 구조』, 민음사, 1999.

6) 홍승표, 「동양사상과 현대사회 비판」, 『동양사상과 사회학의 새 지평』, 한국사회학회, 1997, p.6.

있는 서구 사상과는 달리 유기체적인 '공존'을 중심에 두고 있는 동양 사상을 그 대안으로서 모색해보았다.

동양 사상은 세상만물이 같은 뿌리에서 생겨났으며, 모두 그 근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가정하고, 모든 대상들간의 근본적 통일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인간간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간의 분리와 단절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식하며, 모든 존재의 근본적 통일성에 대한 자각(깨달음)을 통해서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발전의 의미가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아와 무의식간의 분리와 단절의 문제는 동양 사상을 통한 인식 전환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겠다.⁷⁾

그러면 작품 「공존」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동양의 우주론과 음양 이론을 통해 '공존'의 의미를 고찰해 보겠다.

우주론에 있어서 동양사상은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밀도 있게 관련짓고 있다. 그것은 동양인의 경우 농경 사회적 오랜 전통의 영향을 받아왔고, 우주를 한 신앙의 대상처럼 신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우주론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진리를 인지하고, 유도하기 위해서이다.⁸⁾ 동양적 사상에서는 대우주(우주)에 성립되는 법칙이 소우주(인간)에도 반영되어 성립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본질,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동양사상의 기초가 되는 우주론은 그 자체 내에서도 공존의 특성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우주의 본질을 하나의 고정된 특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면서도 불변하는 공존의 법칙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 동양인들은 우주의 본질을 영원한 변화의 세계로 인식하였다. 우주의 변

7) 위의 논문, p.7.

8) 김충열, 『노장철학강의』, 예문서원, 1995, p. 36.

화법칙에 충실한 중국의 생성 우주관은 『역경』에 잘 나타나 있다. 역경이란 한문으로 '變易(변역)⁹⁾'의 '易(역)'을 말하고, 영어로 번역하면 'the Sutra of Change'라 할 정도로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 중국 전통의 우주관은 역경에 있으니, 『주역』¹⁰⁾에서 '역'은 변화의 몇 단계를 거쳐 우주 만유를 생성 변화케 한다. 우주를 '생생(生生)'케 하는 변화작용에 대해서, 『역경』에서는 우주의 변화를 '끊임없는 생성(生生之謂易)'이라 하였고, 정이천과 주희암은 우주를 생멸하는 기(氣)의 집합으로서 또한 '성장성숙(生長成熟)' 원리로 변화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주역의 원리에서는 우주 만유가 지속적으로 생성 변화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이러한 우주의 생성론에서 변화의 법칙은 불변이라는 법칙에 근거하고 있다. 정산종사¹¹⁾는 바로 이러한 뜻에서 변하는 이치와 불변하는 이치의 양면을 설파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세상은 변하는 이치와 불변하는 이치로 이루어져 있나니, 우주는 성주괴공과 사시의 순환이며, 인간의 생로병사와 길흉화복은 변하는 이치에 속하는 것이요, 불변하는 이치는 여여자연하여 시종과 선후가 없는지라, 이는 생멸 없는 성품의 본체를 이름이니라」¹²⁾라고 하였다. 그의 논조처

9) 변역(變易)은 다르게 바뀔, 또는 다르게 바꿈을 말한다. 여기서 역(易)은 '바꾸다, 고치다, 새로워지다'의 의미를 갖는다.

10) 이것은 중국의 『역경』의 64괘에 근거해서 하는 역점이다. 고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주역』이라 일컬어지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단지 역이라고만 일컬어졌다. 옛날에는 "주역(周易)" 혹은 간단히 "역(易)"이라고 불렀다. '역'은 도마뱀의 상형문자인데, 뜻이 변천하여 "변화"를 의미한다. "주역"이란 '널리 변화를 설명하는 책' 혹은 '주대(周代)에 널리 유행한 역점의 서(書)'란 뜻이다. "역경"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송대(宋代) 이후의 일이다. 역은 유교의 天人의 哲學 곧 자연이라는 하늘(天)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에 관한 윤리철학의 교과서로 중국 고대에 태어나 중국의 경전으로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문화의 철학적 사유의 발상이다.

11) 정산종사(1900-1962)는 원불교의 두 번째 종법사이다.

12)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4장, 원불교출판사, 1978. 여기서 불변하는 이치는 시시각각으

럼 우주는 변화와 불변의 법칙과 같은 상호 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음양 이론을 통해 '공존'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동양의 유교에서는 우주가 이(理)와 기(氣)로 구성되어, 이 두 개의 추상적인 힘이 동적인 균형을 이룬다고 본다. '기'는 생동력이 있는 '물질적' 요소인데 공기와 증기가 숨으로 나타나며, 우주의 원초적 질료로 풀이된다. 또 다른 요소인 '이'는 물질적 요소인 '기'를 작동시켜 우주를 생성하는 원리이다. 원리적 '이'는 다시 하나의 원으로 묘사되고, 그것을 둘로 나누어 '음'과 '양'이라 부른다. 즉 음과 양의 원리적 '이'로써 우주본질을 설명한 것이다.

음과 양은 우주의 근원이며 원리로서 모든 만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양은 하늘의 본질인 '빛'과 '능동성'과 '남성'을 말하며, 음은 땅의 본성인 '어두움'과 '수동성'과 '여성'을 대표한다. 음과 양의 동적 활동은 세상 어디에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한다. 계절에도 있고 낮과 밤, 자연 현상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음과 양의 양극적 세력이 동적인 균형을 유지하기도 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면서 우주는 생성하고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의 양극인 음과 양은 서로 반대되고 상충하면서도 또 한편 서로 보충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음양의 활동에서 비롯된 하늘과 땅, 탄생과 죽음, 빛과 어두움 등 이원론적 대립의 자연적 질서는 둘로 분립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로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처럼 음양 이론의 대립은 공존을 지향한다. 음양 이론에서는 대립물간의 관계를 대대적(待對的)인 것으로 인식한다. 대대적 인식이란 나와 대립하는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나의 존재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 변화하는 진리를 불변의 면으로 본 것이다.
13) 서광선, 『종교와 인간』, 이화여대 출판부, 1994.

대립물이란 내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서로는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공존한다. 대립이란 창조의 전제이며, 정상적인 대립물간의 관계는 조화로운 것이며, 상생(相生)과 상성(相成)의 관계인 것이다.¹⁴⁾

본인은 이러한 우주의 운행 질서를 원에 상징화하여 작품 '공존'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공존'에서는 불변의 법칙 속에서 변화하는 우주의 의미를 형상화하였다. 즉, 원은 기하학적으로 변형되었지만, 그 본질은 잃지 않는 형태로 드러나면서 우주의 법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음양으로 이분화 되면서도, 만물이 공존하는 우주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우주의 음과 양(채위짐과 비위짐)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본래적으로는 별개가 아닌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형연구를 통해 우주의 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만물과 인간이 공존함을 되새기고자 하였다.

2. 작품의 표현방법

변화하면서도 불변하는, 음양으로 대립되면서도 상보적인 '공존'의 동양적 우주론은 원의 상징을 통해 작품 「공존」에 형상화되고 있다.

첫 번째로, 원은 우주 만물의 공존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징 형태이다. 원의 범위는 하나의 영역 또는 하나의 세계를 나타낸다. 또한 보편적으로 원은 영원, 궁극적 합일, 완전, 하나, 공존이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상징 의미를 갖는 원을 직선으로 분할하면, 그 형태가 둘로 나누어지는 변화를 갖는다. 또한 변형되기 전 원이 갖고 있던 상징 의미와는 다른, 두 개의 상징의미를 갖게 됨을 볼 수 있다. 즉, 양(+)과 음(-), 빛과 어둠,

14) 홍승표, 앞의 논문, p.10.

남성과 여성, 타인과 나, 자연과 인간 등 두 개의 상반되는 요소들이 공존하게 된다.

작품 「공존」에서는 이러한 원의 두 가지 상징적 의미가 함께 드러나고 있다. 즉 원을 분할하였을 때, 원을 지향하려는 형태의 상징 이미지와 형태변형에 의해 나타난 음양의 상징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원의 형태가 변형 되더라도, 그가 갖는 본질적 특성을 간직하도록 형상화하였기에 가능하다. 이때 하나의 세계를 드러내는 원을 지향하는 형태는 우주의 변화와 불변의 법칙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이분화 되면서도 하나로 존재하는 음과 양을 형상화하여, 우주만물의 조화와 공존의 진리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하학적 형태로 변형된 원에 우주의 이미지를 함축시켜, 인간과 그 외의 다른 만물들이 함께 존재하는 우주의 진리를 형상화한 작품 「공존」은 다양한 조형기법을 통해 표현되었다.

구성 방식 면에서 살펴보면, 작품 「공존」의 형태를 조형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분할적 구성, 반복적 대칭에 의한 집합구성, 점변적 구성을 사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첫째, 분할적 구성¹⁵⁾은 여러 가지의 형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할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준다. 절단에 의해 절단면에 새로운 형태를 부가하는 형식인데, 입체를 등분함으로써 독특하고 심미적인 조형화조건을 성립시키도록 하여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작품 「공존」은 이러한 분할적 구성을 통하여 절단된 단면을 음과 양, 부분과 부분의 관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둘째, 반복적 대칭¹⁶⁾에 의한 집합구성은 동일 요소, 동류 요소를 반복적으로

15) 나오미 아사쿠라, 권오현 역, 『예술 디자인의 입체구성』, 조형사, 1995. pp.244-251.

16) 위의 책, pp. 253-254.

대칭시켜 집합한 것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제작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 표현은 필연적으로 다수 요소의 구성을 본질로 하여 단독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조형적 효과를 준다.

작품 「공존」에서는 서로 대칭관계인 두 개의 집합적 형태로 표현하여, 단독으로 존재할 때와 달리, 두 형태의 대립관계를 강하게 느껴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음양의 양극은 서로 마주보는 형태이지만, 균형 잡힌 하나의 형태로 보이게 하여, 공존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셋째, 점변¹⁷⁾이라는 것은 물체가 점점 변화해 가는 것을 말한다. 몇 개의 형태 사이의 관계나 시간 속에서 변화해 가는 모양이라고 해서 상태에 관한 시점으로 부터의 사물의 해석법이라 할 수 있다.

작품 「공존」은 원에서 분할된 형태들을 다시 점변적 구성에 의해 표현하였다. 크기의 점변적 구성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일종의 그라데이션¹⁸⁾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라데이션은 어떤 형태가 그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배열되는 것으로, 움직임과 방향성이 있는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¹⁹⁾ 원의 분할된 형태를 점변적으로 구성하여, 방향성을 갖게 하였고, 리듬감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재료적인 면에서 다양한 조형 기법을 살펴보겠다. 본인 작품의 주재료는 스테인레스 스틸이다. 스테인레스 스틸은 재료의 변하지 않은 특성으로 '영원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스테인레스를 통해 불멸의 우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구성적 표현은 절단, 연결, 접합되어질

17) 위의 책, pp. 264-266.

18) 그라데이션(gardation)은 어두운데서 밝은 값으로, 큰 모양에서 작은 모양으로, 또는 한 색상에서 다른 색상으로 등과 같이 점진적이며, 매끄럽게, 단계적으로 변해 가는 것을 말한다.

19) 나옴이 아사쿠라, 앞의 책, pp. 266-267.

수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의 물성적 특성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일관적인 재료 사용으로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단점의 대안으로 표면처리에 변화를 주었다.

3. 작품 분석



【작품 1】 공존 I (共存) 1330 × 650 × 1500 (mm) Stainless steel

【작품 1】 공존 I (共存)

크 기 : 1330 × 650 × 1500 (mm)

재 료 : Stainless steel

제작 년도 : 2003

제작 방법 : 도면작업을 한 후에 레이저 커팅을 하였다. 이 때 스테인레스 스틸의 두께는 작품의 크기와 면의 넓이를 고려해서 3mm의 소재로 결정하였다. 면과 면의 알곤 용접시 열팽창 등으로 치수 변형 및 기타의 결함을 고려하여 먼저 가용접을 한 후 본용접을 하였다. 휘어지는 부분은 절단과 밴딩을 한 후에 작업하였다. 표면처리는 전체적 통일감과 은은한 느낌을 고려하여 샌딩 처리 하였다.

[작품1]의 외면적 형태상의 특징은 원을 지향하고 있다.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크기가 다른 7개의 원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가는 형태이다. 원의 분할된 형태를 회전하는 느낌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형태의 원으로 운동감을 나타내었다.

[작품1]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원들은 서로가 물고, 또 물리면서 확장되어가는 형상으로 채워진 공간과 비워진 공간간의 관계를 공존이라는 이치로써 인식하고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각 작품의 특징인 입체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돌출되게 하였고, 원의 제일 바깥부분과 연결되는 바닥부분은 작품의 안정성을 고려해 시각적으로 끼워서 세울 수 있도록 제작하면서 조형적인 구성을 염두해 두었다.



【작품 2】 공존II (共存) 870 × 320 × 830 (mm) Stainless steel

【작품 2】 공존Ⅱ (共存)

크 기 : 870 × 320 × 830 (mm)

재 료 : Stainless steel

제작 년도 : 2003

제작 방법 : 도면 작업을 한 후에 레이저 커팅을 하였다. 스테인레스 스틸의 두께는 작품의 크기와 면의 넓이를 고려해서 두께3mm의 소재로 하였다. 휘어지는 부분은 절단과 밴딩을 한 후에 작업하였다. 표면처리 역시 [작품1]과 같은 방식으로 샌딩 처리 마감하였다.

이 작품은 [작품1]의 내용적 측면의 연작으로 원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일어나는 형태의 변화를 조형성으로 조화롭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2]에서의 형태적 특징은 [작품1]에서와 같이 원의 분할로 이루어진 '음'과 '양'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능동적 성향의 형태를 '양'으로 보고 수동적 성향의 형태를 '음'으로 구분 지었다. 이 작품에서는 끝부분이 화살표 형태로 이루어진 부분이 남성, 즉 '양'이 되고 채워진 반원의 형태를 여성, 즉 '음'으로 보았다. 또한 양과 음이 서로 융합되는 과정에서 '음'의 한 부분을 분리시킴으로써, 형태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렇게 양과 음이 서로 충돌하지만, 큰 원이라는 우주 속에서 융합하고 있는 모습으로 공존을 형상화하였다.



【작품 3】 공존Ⅲ (共存) 780 × 300 × 580 (mm) Stainless steel

【작품 3】 공존Ⅲ (共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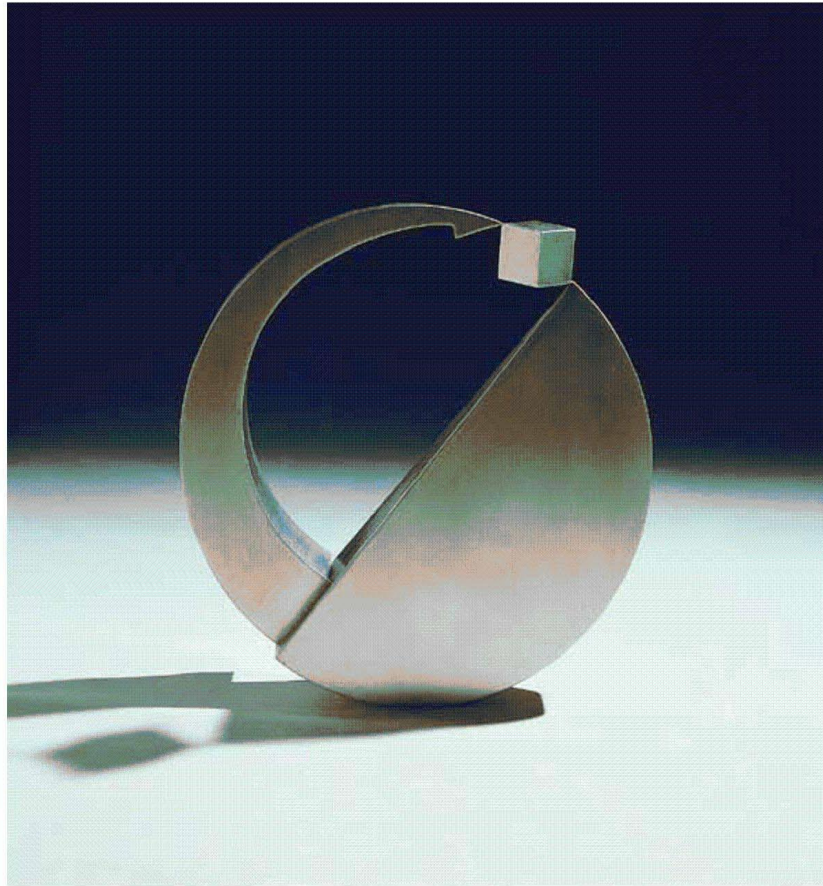
크 기 : 780 × 300 × 580(mm)

재 료 : Stainless steel

제작 년도 : 2003

제작 방법 : [작품3]은 전 장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가공 절단 후 용접하여 분할된 원을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작품 앞부분의 작은 원 속에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철을 넣었다.

[작품3]은 원의 분할로 형성된 형태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체로 재구성되어있다. 음과 양을 남성과 여성으로 보고, 원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생성되는 변화의 모습과 탄생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작품 4】 공존IV (共存) 730 × 200 × 700 (mm) Stainless steel

【작품 4】 공존Ⅳ (共存)

크 기 : 730 × 200 × 700 (mm)

재 료 : Stainless steel

제작 년도 : 2003

제작 방법 : 각면을 절단 후 형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은 용접하여 접합하였다. 그런 후 각 부분을 샌딩 처리 한 후에, 용접해서 결합하였다.

작품 '공존'은 우주론적 근원으로 볼 때 음의 형태와 양의 형태가 유기적인 결합적 요구에 의해 하나의 통합체로 구성된다. 이것은 '음'의 세계가 없이 '양'의 존재도 없음을 나타낸다.

[작품4]에서는 아래 부분의 반원 형태인 '음'에 해당하는 부분과, 위 부분의 화살표 형태인 '양'의 만남에 있어서 새로운 존재가 형성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음과 양'으로 상징되는 형태 사이에 정육면체를 넣음으로써, 이는 우주 속에 존재하는 지구이자 세상 속에 존재하는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5】 공존 V (共存) 800 × 400 × 1600 (mm) Stainless steel

【작품 5】 공존 V (共存)

크 기 : 800 × 400 × 1600 (mm)

재 료 : Stainless steel

제작 년도 : 2003

제작 방법 : 각면을 절단 후 형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은 용접하여 접합하였다.

[작품5]에서는 상승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작품 옆면의 재질 표현은 단계적으로 차이를 주어 상승하는 느낌을 주었다. 동일한 요소를 갖는 두 개의 형태를 서로 대칭하여 '음과 양'의 의미를 주었고, 서로를 비교 대조시킴으로써 대립관계를 강하게 표현하였다. 두 개의 형태가 하나의 집합체로써 표현되어 균형 잡힌 하나의 형태로 보이는 효과로 공존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전장에서 언급한 우주론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주의 본체는 '음과 양'의 이원론적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음과 양'은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면서도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는 '음과 양'이 서로 반대되고 상충하면서도 또 한편 서로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음과 양이 서로 대립 구도 속에서도 하나 됨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



【작품 6】 공존 VI (共存) 860 × 200 × 800 (mm) Stainless steel

【작품 6】 공존Ⅵ (共存)

크 기 : 860 × 200 × 800 (mm)

재 료 : Stainless steel

제작 년도 : 2003

제작 방법 : 각 형태를 구성하는 면을 절단 후,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가용접 후 본용접을 하였다. 표면 처리는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통일감을 주기 위해 샌딩 처리 하였다.

[작품 6]에서 나타나는 화살표의 형태(양)는 반원의 형태를 향하고 있다. 이는 음과 양이 하나를 지향하고자 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화살표 끝은 아랫부분과 닿아있지 않는데, 이는 외부 공간으로부터 열린 공간으로 유입되는 시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작품 7】 공존 VII (共存) 650 × 300 × 750 (mm) Stainless steel

【작품 7】 공존Ⅶ (共存)

크 기 : 650 × 300 × 750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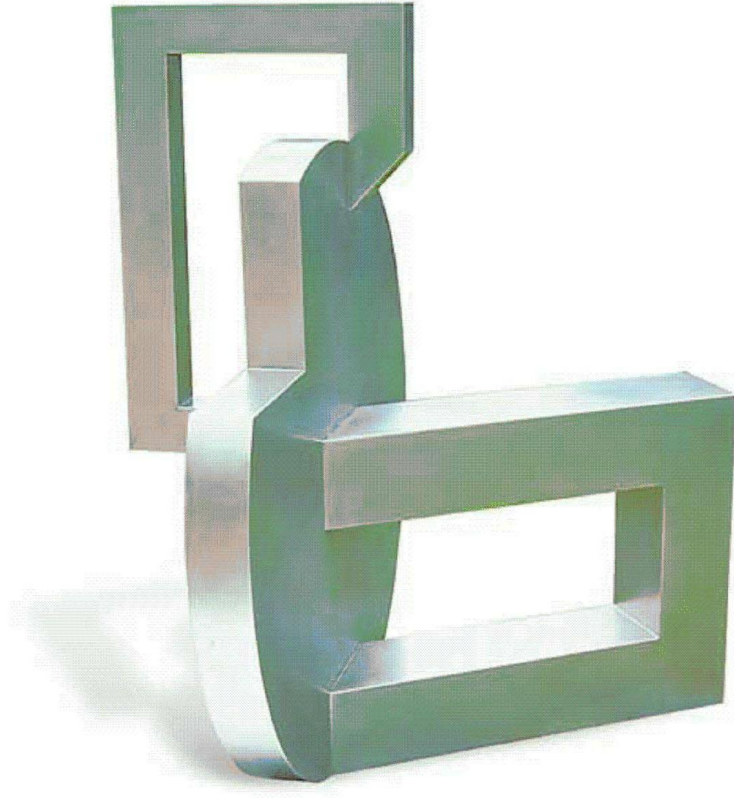
재 료 : Stainless steel

제작 년도 : 2003

제작 방법 : 먼저 원의 1/4을 정확히 절단 후 각 부분을 용접 제작 하였다.
형태상의 평면 부분은 샌딩 처리로 마감하고, 휘어진 부분은 광택처리 하였다.

[작품7]에서는 대칭적 구도를 사용하였다. 대칭은 유기체와 우주에서 모두 나타나는 극명한 질서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대칭성의 원리는 '통일성, 수학적 불변성, 완전성의 개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대칭의 미학을 통해 이분화 되면서도 하나의 통합체인 음과 양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4개로 나누어진 덩어리는 원의 형태를 반전시켜 엇갈리게 붙였고, 이것은 외부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4개의 원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또한 작품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은 비칠 수 있게 광택으로 처리하여 공간의 확장성을 창출해 새로운 내부의 공간을 유도하였다.



【작품 8】 공존 VIII (共存) 1250 × 1130 × 1330 (mm) Stainless steel

【작품 8】 공존Ⅷ (共存)

크 기 : 1250 × 1130 × 1330 (mm)

재 료 : Stainless steel

제작 년도 : 2003

제작 방법 : 도면작업을 한 후에 레이저 커팅을 하였다. 스테인레스 스틸의 두께는 작품의 크기와 면의 넓이를 고려해서 두께 4mm의 소재로 결정하였다. 면과 면의 알콘 용접시 열팽창 등으로 치수 변형 및 기타의 결함을 고려하여 스테인레스 사각파이프로 안쪽에 보강작업을 한 뒤, 가용접을 한 후 본용접을 하였다. 휘어지는 부분은 절단과 밴딩을 한 후에 작업하였다. 표면처리는 전체적 통일감과 은은한 느낌을 고려하여 샌딩 처리 하였다.

[작품8]의 구성방식은 닫힌 공간(음)속에서 열린 공간(양)의 확장을 표현하였다. 원과 사각형이라는 기하학적 구조물로 직선과 곡선이 가져다주는 완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 속에서 구성 양식을 찾고자 하였다.

넓이의 차이와 두께의 차이로 인해 느껴지는 비례적 무게감과 균형감각을 절제된 조형미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단위형의 단순함으로 큰 변화와 명쾌함을 만들하고자 함이다. 모양과 크기의 관련성이 창조적으로 적합하면, 일정의 규칙에 따라서 또 그 필연성을 내재해서 다양한 구성을 전개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Ⅲ. 결 론

우주의 모든 개체는 끊임없이 생성,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며 일정한 궤도 속에서 순환한다. 이러한 우주 운행질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이원적으로 나뉘는 '음'과 '양'이며, 모든 만물은 이분화되어 있으면서 하나로써, 서로 조화하며 공존한다. 인간의 삶 또한 우주의 순환 과정의 일부이며, 인간은 우주의 축소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우주의 법칙 속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라는 동양사상에 바탕을 둘 때, 인간과 자연, 우주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로 공존한다. 이는 서구 사상을 기초로 한 현대 물질문명 사회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간 또한 우주의 일부라는 시각을 갖고, '자연과 인간', '남성과 여성'과 같이 서로 별개이지만 공존하며 화합할 때 함께 번영하며 존재할 수 있음을 작품 「공존」에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공존을 지향하는 동양적 우주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조형화하기 위하여 원을 도입하였다. 특히 변화하면서도 불변하는 우주의 순환질서를 표현하기 위하여, 원의 형태를 변형시키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게 하였다. 또한 작품의 주제인 '공존'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분화 되면서도 본래 하나인 '음'과 '양'을 원의 분할로써 형상화하였다. 조형적 표현의 방법에서는 분할, 반복, 대칭, 집합적 구성, 점변적 구성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작품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좀더 체계적인 내용의 의미와 조형적인 표현 방법이 요구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점이 향후 본인이 보

다 깊은 연구를 통해 표현되어야 할 연구 과제라 생각된다.

본인은 앞으로 작품을 표현함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조형 재료와 표현방법을
모색하여 보다 깊이 있는 조형적 세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김용욱,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음사, 1985.
- 김충열, 『노장철학강의』, 예문서원, 1995.
- 김형기, 「역의 공존적 이해와 괘효의 상징화」,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2003.
- 서광선, 『종교와 인간』, 이화여대 출판부, 1994.
- 월간미술 엮음,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8.
- 홍승표, 「동양사상과 현대사회 비판」, 『동양사상과 사회학의 새지평』, 한국사회학회, 1997.
- 『정산종사법어』, 원불교 출판사, 1978.
- 나오미 아사쿠라, 권오현 역, 『예술 디자인의 입체구성』, 조형사, 1995.
- 이마무라 히토시, 이수정 역, 『근대성의 구조』, 민음사, 1999.
- 守本順一郎(수본순일낭)저, 김수길 역, 『동양정치사상사 연구』, 동녘, 1985.
- 게오르크 W. 프리드리히 헤겔, 두행숙 역, 『헤겔미학 I』, 나남출판, 1996.

ABSTRACT

A Study on Making into Molding through the
Symbolical Meaning of Circle

- Centering around My Work -

Oh, Dong Hoon
Sculpture Major
Dept. of Plastic Arts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what this researcher studied and analyzed the contents side and plastic side which appeared in work on my work manufactured in 2003.

I expressed the interdependency of negative and positive with symbolical image on the basis of Oriental cosmology about the form circle. That is, this researcher tried to show that all the things of universe are being divided dichotomically but they coexist as one organism. Thus, this researcher tried to express that all the things such as men and women, life and death, & sky and land etc. are with bisected structure and co-exist through mutual harmony.

This thesis is composed of 3 chapters totally.

In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this researcher clarified the manufacture motive, and the study goal, study contents, and method of work.

In the main discourse of chapter 2, this researcher this researcher tried to find theoretical base about the harmony and co-existence of negative and positive which are the basic vein of work contents on the basis of Oriental cosmology.

This researcher clarified the expression method of work which was made into molding on the basis of it. In the analysis of work, this researcher analyzed manufacture technique, expression material, and manufacture intention etc.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3, this researcher groped for the direction for my future work by arranging the contents and work of this thesis roughly and my work world.